

서울시 4대 전략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서울시 경제현황

- 서울은 전국 면적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2년 현재 전국 대비 인구의 23.3%, GDP의 21.9%(당해연도 가격기준), 사업체수의 25.1%, 종업원 수의 28.0%를 점유하고 있음.
- 또한, 2001년 현재 서비스업은 78.3%(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제외)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나타냄.
- 특히, 종사자수 기준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전국대비 45.2%로 우리나라 최대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행정·금융기관, 대기업 본사, 교육·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인구 과밀, 지가상승, 제조업 기반 산업의 공동화로 전국 대비 서울의 지역 내총생산은 1990년 25.32%에서 2000년 21.69%로 감소하였음.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산업

- 전략산업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역량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기술융합적인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제한된 자원으로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산업의 선정이 필요함.
- 도시계획상 서울 및 수도권 경쟁력 제고(1중심-서울, 2중심-인천·수원)와 연계하여 서울시는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 및 사업서비스 등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음.

- 서울시는 지식기반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유치를 통해 이들 산업을 집적시켜 서울경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식기반 4대 전략산업별 입지분포 현황

- 서울시 4대 지식기반 전략산업별 입지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산업·동별 고용비율을 통해 종사자 기준으로 공간분포현황을 살펴보았으며, LQ(Location Quotient, 입지계수)를 통해 상대적 특화도가 높은 지역을 검토하였음.
- 4대 전략산업을 포함한 서울시 전산업의 총사업체수는 2003년 기준 748,953개, 총종사자수는 3,791,943명임.
- 서울시 전체 산업 중 종사자 기준으로 디지털콘텐츠 1.36%, 정보통신 6.47%, 바이오 0.66%, 금융 및 사업서비스 9.48% 등을 점유, 금융 및 사업서비스와 정보통신 산업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콘텐츠산업>

- 2003년 현재 서울시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총 51,423명의 종사자, 6,198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고용밀도는 평균 0.80(인/ha)으로 타 전략산업에 비해 낮은 밀도를 보임.
- 세부 업종별 분포
 - 디지털콘텐츠 산업 중 제조업은 종사자수 기준 3.4%, 도매 및 임대업은 8.1%, 부동산 및 임대업은 6.9%, 사업서비스업은 13.9%,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은 67.7%의 비중을 차지함.
 -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영화·방송·공연과 판매·임대업 위주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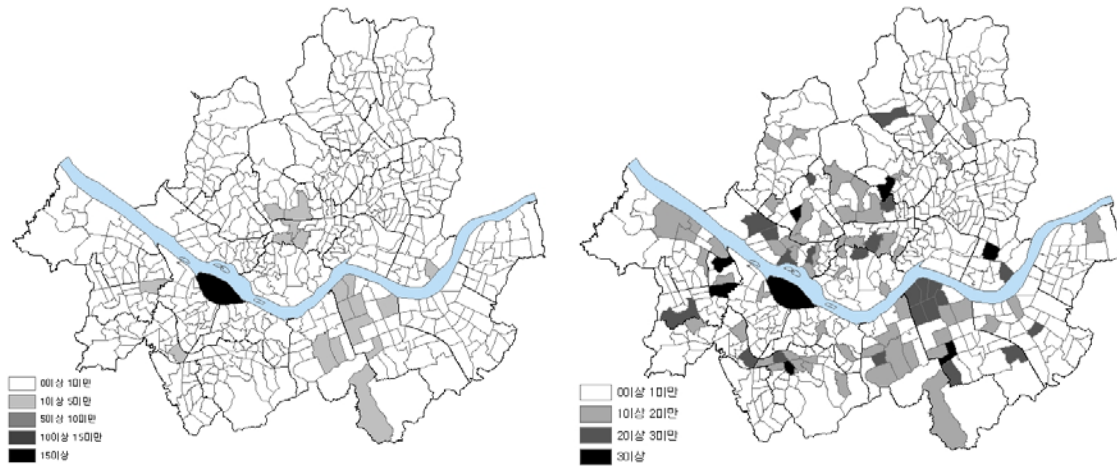
○ 행정동별 산업분포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고용비율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19.42%로 가장 높으며, 종로구 종로1~4가동 4.53%, 양천구 목1동 3.99%, 강남구 역삼1동 3.01%, 강남구 논현2동 2.59%의 순으로 나타남.
- 디지털콘텐츠 전체 산업의 LQ가 높은 지역은 양천구 목1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종로구 혜화동, 관악구 신림1동, 강남구 도곡2동 등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중 제조업은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강남구, 도매 및 소매업은 강남구, 마포구, 부동산 및 임대업은 관악구, 사업서비스업은 양천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에서 비교적 높은 특화도를 보임.
- 특히,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업종의 경우 디지털콘텐츠 전체산업과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높은 특화도를 나타내고 있음.

○ 디지털콘텐츠 클러스터는 도심권과 같이 풍부한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혹은 강남·서초구 등 업무환경이 발달한 지역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됨.

<표 1> 디지털콘텐츠 업종 중 높은 특화도(종사자수기준 LQ)를 나타내는 지역

디지털콘텐츠 전체 산업		디지털콘텐츠 제조업		디지털콘텐츠 도매 및 소매업		디지털콘텐츠 부동산 및 임대업		디지털콘텐츠 사업서비스업		디지털콘텐츠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행정동	LQ	행정동	LQ	행정동	LQ	행정동	LQ	행정동	LQ	행정동	LQ
목1동	7.91	연희2동	14.65	압구정2동	17.6	신림1동	4.93	목2동	21.02	목1동	11.48
여의도동	6.06	성산1동	12.42		6			성북1동	17.87	여의도동	8.47
혜화동	4.31	필동	8.40		8.10			수서동	15.83	혜화동	5.92
신림1동	4.28	압구정1동	6.59					방배1동	14.80	신림1동	5.82
								구의3동	12.28	능동	4.77



<그림 1>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행정동별 고용비율(%)과 LQ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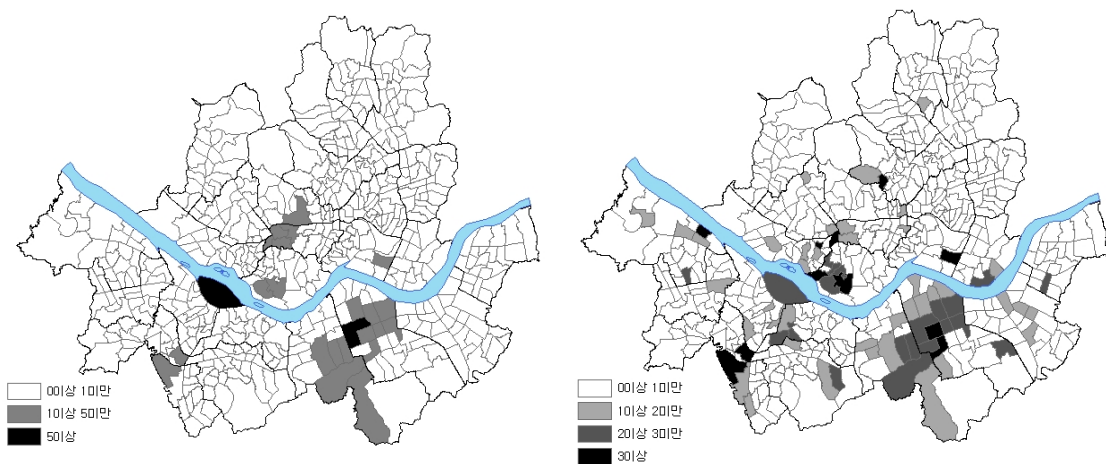
<정보통신산업>

- 2003년 현재 서울시 정보통신산업은 총 245,361명의 종사자, 14,698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고용밀도는 평균 4.15(인/ha)임.
- 세부 업종별 분포
 - 정보통신산업 중 정보통신 도매 및 소매·임대업은 종사자수 기준 14.69%, 사업서비스업은 51.03%, 제조업은 22.23%, 통신업은 12.05%로 사업서비스업 위주의 산업분포를 보임.
- 지역별 산업분포
 - 동별 고용비율은 강남구 역삼1동 7.26%, 영등포구 여의도동 6.60%, 금천구 가산동 4.61%, 구로구 구로3동 3.82%, 강남구 삼성1동 3.18%의 순서를 보임.
 - LQ가 높은 지역으로는 구로구 구로3동, 금천구 가산동, 용산구 원효로 2동·한강로2동, 중구 중림동 임.
- 세부업종 및 기능에 따라 각각의 산업이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고 업무와 생산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거대한 산업클러스터로서의 발전 전망을 기대해볼 수 있음.

- 지역별로 소프트웨어개발은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정보통신제조업은 금천구, 구로구, 제품판매서비스는 용산구와 광진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

<표 2> 정보통신(IT) 업종 중 높은 특화도(종사자수기준 LQ)를 나타내는 지역

정보통신 전체 산업		정보통신 도매 및 소매 임대업		정보통신 사업서비스업		정보통신 제조업		정보통신 통신업	
행정동	LQ	행정동	LQ	행정동	LQ	행정동	LQ	행정동	LQ
구로3동	4.97	한강로2동	26.30	종림동 성북1동 구로3동 역삼2동	8.06 5.80 5.57 5.22	중림동	18.50	화곡8동	23.14
가산동	4.48	원효로2동	23.66			성북1동	13.30	자양2동	19.47
원효로2동	4.44	도곡2동	12.37			구로3동	12.78	상도3동	16.93
중림동	4.38	한강로1동	14.56			역삼2동	11.99	성내3동	16.38
한강로2동	4.14	원효로1동	11.66			도곡2동	8.54	봉천11동	10.70
		한강로3동	11.27			삼성2동	7.60	한강로3동	6.12
		효창동	9.10			대치3동	7.31		



<그림 2> 정보통신산업의 행정동별 고용비율(%)과 LQ지수

<바이오산업>

- 2003년 현재 서울시 바이오산업은 총 25,121명의 종사자, 949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고용밀도는 평균 0.47(인/ha)로 다른 전략산업에 비해 낮은 고용밀도를 보임.
- 세부 업종별 분포
 - 바이오 제조업은 종사자수 기준 전체 바이오산업의 88.60%이며, 바이오 연구 및 개발업은 11.67%로 나타나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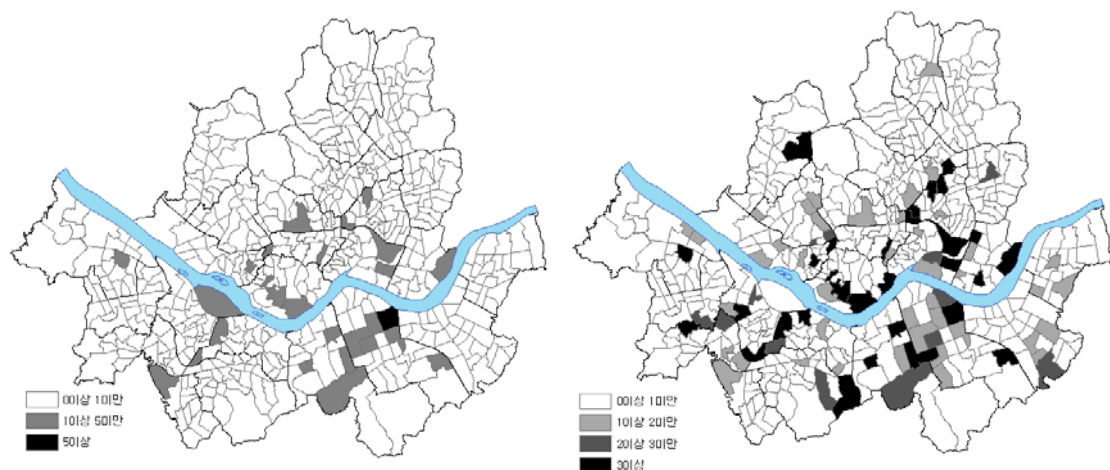
○ 지역별 산업분포

- 서울시 전체 바이오산업 고용비율은 강남구 삼성1동 7.94%, 역삼1동 4.26%로 강남지역이 높은 값을 보이며, 동작구 대방동 3.36%, 종로구 종로1~4가동 3.34%, 서초구 서초동 2.97%의 순서를 나타냄.
- LQ가 높은 지역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용산구 서빙고동, 동작구 신대방1동, 대방동 등임.
- 세부 업종별로 바이오 제조업은 동작구, 중구, 서초구, 바이오 R&D는 동대문구 청량리2동, 용산구 서빙고동, 은평구 불광1동에서 높은 LQ값을 보여 이들 지역에서 높은 특화도를 나타냄.

○ 특히, R&D의 경우, 관악구(서울대), 서대문구(연세대), 종로구(서울대 의대, 성균관대) 등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집적지가 형성되고 있음.

<표 3> 바이오산업 업종 중 높은 특화도(종사자수기준 LQ)를 나타내는 지역

바이오 전체 산업		바이오 제조업		바이오 연구 및 개발업	
행정동	LQ	행정동	LQ	행정동	LQ
청량리2동	25.84	신대방1동	14.53	청량리2동	221.27
서빙고동	16.54	대방동	14.38	서빙고동	127.92
신대방1동	12.83	신당2동	11.87	불광1동	59.90
대방동	12.77	석관2동	10.31	회기동	28.53
신당2동	10.48	반포1동	9.85	노량진1동	27.83
석관2동	9.10	방배1동	9.24	용답동	23.49
				봉천7동	1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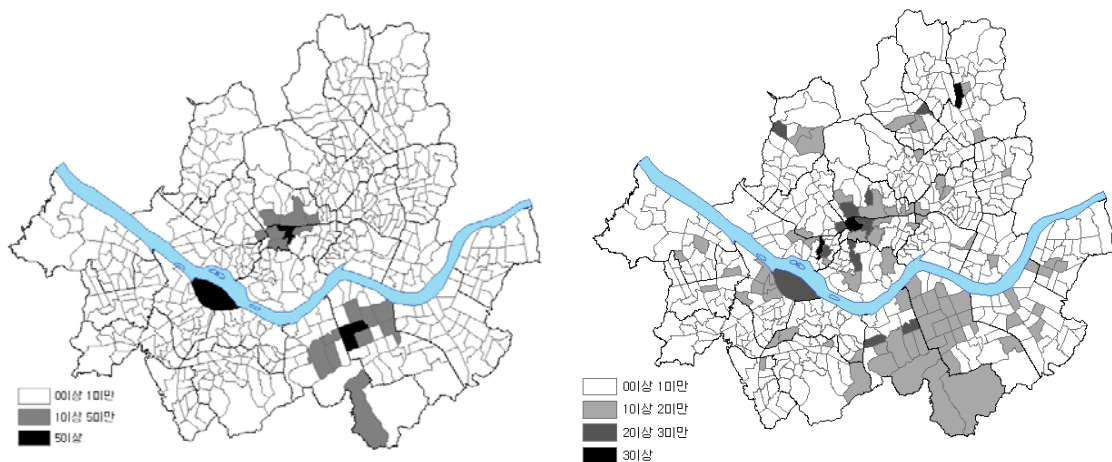
<그림 3> 바이오산업의 행정동별 고용비율(%)과 LQ지수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 2003년 현재 서울시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은 총 359,665명의 종사자, 27,584개의 사업체로 평균고용밀도는 6.79(인/ha)이고, 최대값은 216.81(인/ha)로 명동, 소공동 등 중구 지역에서 높은 고용밀도를 보임.
- 세부 업종별 분포
 - 금융 및 보험업은 종사자수 기준 서울시 전체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의 59.31%이며, 사업서비스업은 40.69%를 차지함.
- 지역별 산업분포
 - 각 동별 고용비율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8.80%, 강남구 역삼동 6.16%, 중구 명동 5.78%, 소공동 4.97%, 종로구 종로1~4가동 3.46%, 서초구 서초3동 2.75% 등 강남지역과 도심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임.
 - 사업체수 기준으로도 서초구와 강남구, 중구, 종로구, 여의도동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부 업종별로 금융 및 보험업은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 종로구, 사업서비스업은 강남구, 서초구, 중구, 금융 및 보험업은 여의도 일대와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서비스업은 강남권이 핵심 클러스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지역과 강남지역, 영등포구 지역의 경우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외 다른 산업이 함께 밀집되어 있어 상대적인 특화도가 낮게 측정되었음
 - 또한, 마포구 염리동, 중구 소공동, 노원구 상계6동, 서대문구 충정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 높은 LQ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업종 중 높은 특화도(종사자수기준 LQ)를 나타내는 지역

전체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행정동	LQ	행정동	LQ	행정동	LQ
염리동	3.10	상계6동	4.95	청량리2동	4.67
소공동	3.09	염리동	4.87	내곡동	3.70
상계6동	3.08	충정로동	4.50	한남2동	3.59
		소공동	4.32	한강로2동	3.53
		명동	3.99	도곡2동	3.41
		여의도동	3.55		



<그림 4>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의 행정동별 고용비율(%)과 LQ지수

지식기반 전략산업 육성방안 및 정책과제

<전략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 기술융합형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거점 조성
 -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의 거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입지기반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 강화
- 전략산업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 기업, 대학, 연구소, 타 광역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전략산업별 육성방안 및 정책과제>

-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략산업별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금융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이들 지구를 활성화.

<표 5> 전략산업별 예상특화지구

특화지구명	장소
금융산업 및 국제비즈니스 특화지구	국제비즈니스 : 도심/용산/강남/여의도/상암 (다이아몬드 형) 동북아금융허브 : 명동/여의도/강남
디지털콘텐츠산업 특화지구	상암 DMC
정보통신 특화지구 (IT Green Line 조성)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 청계천도심, IT서비스업 : 강남 IT제조업 : 구로/금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상암DMC
바이오산업 특화지구	홍릉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벤처밸리

자료 : 서울특별시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 디지털콘텐츠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 향후 도심에서의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암은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완성될 경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문화와 업무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정보산업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따라 IT Green Line 구축하여 테헤란밸리, 도심, DMC, 디지털산업단지를 연계한 IT클러스터로 육성이 필요함.
- 바이오산업은 서울형 바이오산업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소규모 바이오 집적지의 기업, 연구시설,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산·학·연 공동협력 모색과 인근지역과의 기술공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금융거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오피스 및 인센티브 제공, 고급인력 유치에 필요한 주거공간 공급, 첨단 교통·통신시설의 구축, 국내 기업의 국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함.
- 도심, 용산, 여의도, 강남, DMC 등 금융벨트에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연계하여 국제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금융 및 사업서비스산업

집적지에 관련 업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
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박희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hspark@sdi.re.kr

홍나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tristis@sdi.re.kr